

삼일교회 3대 비전(vision)

1. 선교하는 교회
2.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3.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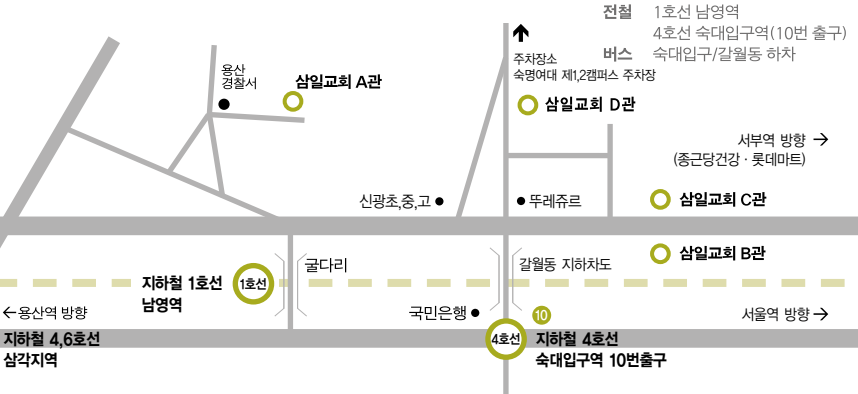
예배 안내

예배	시간	장소 (온/오프라인)	예배	시간	장소 (온/오프라인)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B관 에덴홀 오프라인	영아1,2세부(부모동반)	오전 9:30/11:30	B관 405호
	2부: 오전 9:30	온/오프라인	영아3세부		B관 404호
	3부: 오전 11:30	온/오프라인 (영어통역 English)	유아4세부	오전 11:30	B관 401호
	4부: 오후 1:15	온/오프라인	유아5세부		B관 402호
	5부: 오후 3:00	온/오프라인 (일어, 중국어통역)	유치부A(6세)		B관 703호
주일 저녁예배	오후 7:00	온/오프라인	유치부B(7세)		B관 503호
	오후 2:30	오프라인	유년1년부		C관 1층
주일진예배	오후 4:30		유년2년부		C관 2층
토요리더예배	오전 11:30		초등3년부	오전 9:30	C관 4층
	오후 5:00		초등4년부		B관 에덴홀
수요목장예배	오전11:00	B관 2층 본당 오프라인	소년부(5,6학년)		B관 701호
			중등부예배	오전 11:30	B관 701호
수요예배	오후 7:30		고등부예배		B관 에덴홀
금요기도회	오후 9:00	온/오프라인	사랑부 교회학교팀 성인팀	각부서 예배참고 오후 1:00	B관 503호
새벽기도회	오전 6:00		서울역사랑나눔부	오후 4:30	B관 401호
			국제예배(SIF)	오후 1:30	C관 3층
			새가족등록	주일 1부~5부 예배 직후	B관 5층 새가족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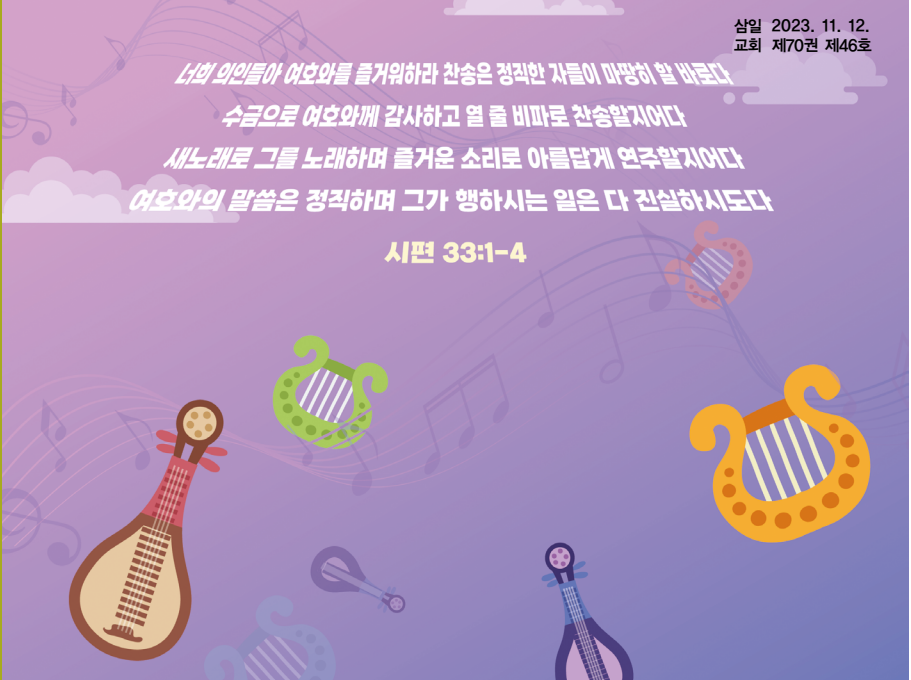
11월 예배봉사 위원	11월 대표 기도 순서		11월 봉헌위원	
	2부	3부	2부	박정석 집사
	11월 1주	이동혁 장로 장구경 장로	3부	이선호 집사
	11월 2주	〈성 찬 식〉	4부	박노규 집사
	11월 3주	장재수 집사 조귀봉 집사	5부	박상규 집사
	11월 4주	김경준 장로 주병옥 장로	저녁	김병중 집사

교회안내

B관	베다니관_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4 (청파동1가 삼일교회 교육관)	Tel 02-713-2660	Fax 02-3273-5297
A관	아브라함관_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89길 18-19		
C관	씨플관_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5	Tel 02-2197-9315	
D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34-2	Tel 02-2197-9316	
	헤세드 상담센터(D관2층)	Tel 02-712-0300	
	삼일수양관_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철마산로 336-10	Tel 031-591-3133	



섬기는 분들



주일 1-5부 예배	설교 송태근 목사(사회: 박종현 목사 2부: 이광호 목사 3부: 용진호 목사 〈성찬식〉 4부: 황규현 목사 5부: 서동혁 목사)
	본문 이사야 11:1-9 제목 이사야강해(15)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주일 저녁예배	설교 송태근 목사(사회: 박종인 목사) 본문 요한일서 2:1-17 제목 요한일서강해(4) “영원한 세 가지”
수요목장예배	설교 최성근 목사
수요예배	설교 이성호 목사 본문 갈라디아서 5:16-26 제목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금요기도회	〈찬양 간증집회〉 강찬 목사
새벽기도회	설교 월: 양제현 목사 화: 박종현 목사 수: 김일호 목사 목: 하근태 목사 금: 송예준 강도사

Samil Church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일교회**

담임목사 **송태근**

GBS교안

2023. 11월 둘째주.

“남은 자의 귀환” (사 9:8-10:23)

설교 요약

이사야서에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씨줄과 날줄처럼 얹혀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한 아기의 탄생을 예고한 뒤에,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앗수르에게까지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1. 세 나라를 향한 심판 예고

하나님은 먼저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98-21). 그들은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 길을 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 다음 심판의 경고는 남유다를 향합니다(10:1-4). 유다의 죄는 이미 이사야서에서 여러 차례 고발되었습니다. 유다의 지도층들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불의한 법을 만들고 굵은 판결을 내려서 약한 자들의 고혈을 빨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쌓은 재물을 의지하였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재물이 아무런 소망도 주지 못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경고에 이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앗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10:5-19). 앗수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주제와 한계를 망각한 채,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맹렬한 진노로 심판하시고 멸절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2. 남은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세 나라의 최악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것은 교만이며,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도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말로 드러났습니다.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착취를 통해서라도 재물을 쌓아놓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의 크기와 세력과 규모를 과시하며 선을 넘는 행태로 드러났습니다. 교만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엔 파멸이 따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 심판 중에도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은 현실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앗수르의 힘을 빌리고자 성전과 왕궁과 백성들의 집의 재물을 탈탈 털어 바쳤으나,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배반을 당하고 말았습니다(대하 28:19-21). 반면 남은 자들은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세상의 현실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들이 곧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들은 모래 같은 수많은 백성 중에 한 줍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무리입니다. 멸망의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좁은 길을 찾고 그 길로 향하는 이들은 심히 적습니다(마 7:13-14).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자신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남은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남은 낮은 자들을 통해 온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은혜 나누기

※ 세 나라가 심판의 경고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 '남은 자'의 특징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남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